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참회’ “화쟁위·종단 결정 따르겠다”

24일 일요법회서 밝혀... 직영지정 문제 일단락

봉은사 문제가 일단락됐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화쟁위가 봉은사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직영사찰운영안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지난 24일 종단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결정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참회하고, “화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탈게든 꽃게든) 다 받겠다”고 말했다.

명진스님은 이날 봉은사 일요법회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서 화쟁위원회의 입장, 총무원장 스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스님은 일요법회를 통해 직영지정 이후 빚어진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밝혔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길고 길었던

아픔, 총무원과의 싸움은 주지로서의 부덕함, 수행자답지 못한 때문이었다”며 “머리 숙여 참회를 올린다”고 말했다.

명진스님은 화쟁위원 및 총무원장 스님과 22일 저녁공양을 함께하며 나누는 이야기도 신도들 앞에 털어놨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도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된 봉은사 직영화 문제와 관련 “수행자답지 못한 언행으로 화쟁위원, 총무원장 스님과 종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참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봉은사와 같은 무명 한 재정운영과 공개적인 살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의사결정 등의 의식이 정착되고 널리 퍼져나가 한국 불교를 바꾸는 희망의 불꽃을 이곳에서 피우고 싶다”고 밝히고 “그러

한 희망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봉은사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으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종단의 직영사찰 지정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주지 임기 4년 보장 등의 안을 마련했다. 화쟁위는 또 봉은사 측에 대해서는 종단의 직영사찰 지정과 인사권을 받아들이고 총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문제에서 봉은사의 입장을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양측에 대해 상호 예의와 격식을 갖춰 종도 앞에 참회하고 화합할 것도 제시했다. 화쟁위의 주문을 명진스님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봉은사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겼다.

박부영·박인택 기자



‘700년 만의 해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3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불화대전 - 700년 만의 해후’를 관람했다. G20 정상회의와 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 소재 고려불화 27점과 미국과

유럽 소재 고려불화 15점 및 국내 소재 고려불화 19점 등 국내외의 고려불화 61점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불화와 비교 감상하기 위한 중국일본 불화 20점, 고려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 전서 불화 5점, 고려시대 불상과 공예품 22점도 볼 수 있다. <본지 제2663호 9면 참조> 김형주 기자

“법난 상처 딛고 사회통합의 길로”

총무원장 자승스님 ‘10·27법난 30주년 담화문’

정확한 기록 보존관리·진실규명·명예회복 강조

10·27 법난 30주년을 맞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난의 상처를 딛고 불교종흥과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자”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신문> 10월27일자를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10·27 법난이라는 과거사의 비극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달래면서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모든 민주주의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의 성찰로부터 얻어진 교훈은 국가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명쾌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27 법난은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전국사찰이 계엄군의 군화발에 유린당한 날로 한국 현대사에 유례 없는 비극적 사건”이라며 “10·27 법난에 따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정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

회정의가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참회와 용서를 통한 원용회통의 불교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며, 과거사 청산을 통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문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 종교의 명예 및 존엄성 회복과 재발 방지 △ 10·27 법난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 △ 10·27 법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보존관리 등을 과제

로 제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무엇보다 가해자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피해자는 자비를 베풀어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직능 20명·비구니 9명

제15대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

선출촉, “미비점 입법청원서 제출”

제15대 중앙종회 직능대표가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 대표 9명을 선출했다.

비구니 대표 의석은 모두 10석이지만 후보자 스님 1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9명만 선출됐다. 비구니 대표 1석은 10월28일 선거 이후에 전국비구니회 추천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선출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사무처장 해일스님은 “직능대표 선출과 관련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종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육위원장 현은스님, 포교위원장 혜충

스님, 11교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통광스님, 지선스님, 도진스님, 종열스님, 명진스님 등 9명이다.

이날 선출된 제15대 중앙종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대표는 다음과 같다.

△ 직능대표(팔호안은 분야) = 대오스님(선원), 향적스님(교육), 범광스님(법제), 장운스님(사회), 정산스님(문화), 범안스님(교육), 원범스님(사회), 무애스님(선원), 해림스님(행정), 정도스님(포교), 범해스님(문화), 덕문스님(율원), 토진스님(복지), 지홍스님(율원), 영배스님(법제), 본해스님(행정), 각림스님(강원), 종민스님(복지), 성행스님(포교), 해일스님(강원). <이상 20명>
△ 비구니 대표 = 계환스님, 일진스님, 상덕스님, 일운스님, 구과스님, 지홍스님, 지성스님, 탁연스님, 정운스님. <이상 9명>

이성수·김하영 기자

직능·비구니 대표 <명단>

직능 (간선) 20명	
율원	덕문스님, 지홍스님
선원	대오스님, 무애스님
강원	각림스님, 해일스님
교육	향적스님, 범안스님
포교	정도스님, 성행스님
사회	장운스님, 원범스님
복지	토진스님, 종민스님
문화	정산스님, 범해스님
법제	범광스님, 영배스님
행정	해림스님, 본해스님
비구니 (간선) 9명	
계환스님, 일진스님, 상덕스님, 일운스님, 구과스님, 지홍스님, 지성스님, 탁연스님, 정운스님	

社 告

원폭 피해자 2세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불교신문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원폭 피해자 2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당 1명 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일제 강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피해가 65년이 지난 지금도 되물림 되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 2세의 경우,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명이면 피해자들의 인식치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3.3㎡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합천평화의집, 아름다운동행
- 주 관 : 합천평화의집
- 기 간 : 2010년 9월22일부터 1년간
- 목 표 액 : 2억원
- 후원방법 : 5만원 - 원폭피해 2세를 위한 땅 3.3㎡(1평) 후원(십시일반 동참도 가능)
- 후원계좌 : 농협 301-0063-8703-21(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 문 의 : 합천평화의집 (055)934-0301,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신문사 (02)730-4488

백제불교 문화의 꽃
아미타 제일도량

無量壽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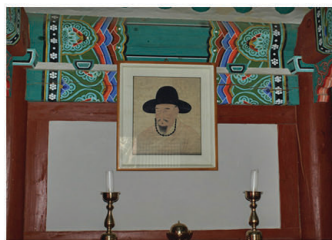
1400년 백제문화의 수도에서 만나는 천년의 백제

백제의 고향 만수산 기슭, 소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맑은 태에 자리한 무량사는 9세기 경 발원국사가 창건한 후 무주 고영(無住)대사에 의해 중창이 이루어진 천년고찰입니다. 불교가 융성한 시절 대규모 불사를 통해 전각 30여동에 부속암자 12개 등이 존재했던 대찰로 기록은 전하고 있으며 2000년 개울 건너에서 옛 무량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와장, 주초석 등이 발굴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량사의 대표적인 전각인 극락전(보물 제366호)은 드물게 중중구조를 취하고 사찰 중앙에 자리한 오층석탑(보물 제85호)과 석등(보물 제233호)이우려져 흥내낼 수 없는 백제불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간직한 극락전은 오랜기간 보수공사를 금년초에 마치고 옛 자태를 고스란히 재현하여 참배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 세조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비판, 책을 불사르고 스님이 되어 말년에 무량사에 들어와 50세 때 입적하였는데 그의 유언대로 절 옆에 묻혔다가 3년 후에 파보니 얼굴이 산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현재 화장할 때 발견된 사리를 모신 부도와 직접 그렸다는 화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백제불교문화의 향훈을 그대로 간직한 도량인 무량사에서 잃어버린 백제문화의 정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주지 석전 외 무량사 대중 합창



사찰 순례 안내 및 예약 문의 ☎ 041-836-5066